

벼랑 끝 KIA, 4강꿈 '가물가물'

홈서 삼성에 3연패... 롯데와 6경기차

호랑이들의 '가을잔치' 꿈이 멀어졌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결에서 3-4로 재역전패를 당하면서 주말 3연전에서 3연패를 기록했다. 4위 롯데는 주중 SK와의 경기에서 이어 주말에 만난 두산에 상대로 6연승 행진을 달리며 5위 KIA와의 격차를 6경기차까지 벌렸다. KIA가 초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귀중한 1승을 삼성에게 헌납했다.

1회말 중전안타로 출루한 김선빈이 도루에 성공해 1사 2루를 만들었지만 3-4번을 책임진 안치홍과 김상현이 삼진으로 돌아섰다. 연속 불넷으로 얻은 2회말 1사 1-2루의 기회에서는 김상현의 병살타가 나왔다. 3회 선두타자 이영수의 불넷을 시작으로 다시 한 번 KIA가 불넷 3개로 무사 만루를 만들었다. 하지만 안치홍의 내야 플라이와 최희섭의 병살타로 득점 없이 KIA의 세 번째 이닝이 종료됐다. KIA 타선이 무기력한 공격을 이어가는 틀

을 타 삼성이 선취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4회초 2사에서 최형우가 서재응의 직구를 노려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만들었다. 4회말 뒤늦게 KIA 타선이 움직였다. 차일목의 불넷으로 만든 1사 1루에서 나지완의 시즌 13호포가 터지면서 KIA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4회 홈런을 주고받는 뒤 양팀의 침묵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삼성이 먼저 침묵을 깼다. 6회까지 1실점으로 삼성 타선을 막아낸 서재응이 7회초 투아웃을 잡은 뒤 현재유에게 안타를 허용했다. 이후 서재응이 연속 안타로 2실점을 하며 2-3으로 승부가 뒤집혔

다. 광정철로 마운드가 교체됐지만 삼성 김상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점수는 2-4가 됐다. KIA는 9회 2사에서 이용규와 김선빈의 연속안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추가 득점 실패하며 3연패로 주말 3연전을 마감했다. 한편 이날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야구의 날'을 기념해 일반석 50% 할인 행사와 KIA 외야수 이용규, 삼성 투수 장원삼의 팬 사인회가 진행됐다. '야구의 날'은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에서 9전 전승으로 남자 단체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계 중등축구 연맹전 장흥중 2연패 달성

부산 중앙중 4-0 대파

장흥중이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2연패에 성공했다. 장흥중은 20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중앙중과의 제45회 추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 추무그룹 결승전에서 4골을 몰아 넣는 공격력을 과시하며 4-0으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대회 봉황그룹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장흥중은 이날 승리로 중등 축구연맹전 2연패를 달성했다. 결승전에서 한 골을 더한 장흥중 전현상은 추무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이은호는 최우수GK상을 받았다. 김동

군 감독과 김강선 코치는 최우수 지도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 매산중도 마산 용마중을 2-0으로 꺾고 1학년 부부 추무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매산중 김상현은 최우수선수상을 명재용 감독과 박정민 코치는 최우수 지도상을 받았다. 광덕중은 경기 수석 중과 1학년 추무그룹 공동 3위에 올랐다. 한편 지난 9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33개팀(고학년 139개팀, 1학년 94개팀)이 참가, 5개 그룹으로 나뉘며 모교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름과 비슷한 스위스 레슬링

스위스 전통 스포츠인 '쉬빙겐' 선수들이 21일(현지시간) 프라우덴 펠드의 알파인 레슬링 축제에서 맞붙어 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름과 비슷한 쉬빙겐은 모래 대신 톱밥을 깔고 살바 대신 짧은 덧바지를 입고 경기를 한다. /연합뉴스

볼턴 이청용 시즌 첫 공격포인트

웨스트햄전 어시스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은 이청용(22·볼턴)이 결승골을 도와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올리면서 볼턴의 첫 승리를 이끌었다. 이청용은 22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업튼 파크에서 끝난 2010-2011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후반 23분 요한 엘만더의 추가골을 도왔다. 볼턴은 3-1로 이겨 이청용이 도운 엘만더의 골은 결승점이 됐다. 지난 15일 풀럼과 시즌 개막전(0-0 무승부)에서 풀럼을 뒤엎던 이청용은 시즌 두 경기째 만에 마수없이 공격포인트를 올리면서 지난 시즌(5골8도움) 못지 않은 활약을 예고했다.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지난 시즌에는 리그 컵대회인 칼링컵을 포함해 4경기 만에 첫 공격포인트(도움)를 기록했다. 특히 이청용은 웨스트햄과 맞대결한 4경

기에서 모두 공격포인트(1골3도움)를 올리며 '웨스트햄 킬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지난해 9월 칼링컵 3라운드 경기(3-1 승)에서 잉글랜드 진출 후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12월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홈 경기(3-1 승)에서는 득점포를, 지난 3월 리그 29라운드 원정경기(2-1 승)에서는 다시 도움을 올렸다. 이날 4-4-2 포메이션의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선 이청용은 81분을 뛰고 후반 36분 매튜 테일러와 교체됐다. 한편,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에서 활약 중인 박주영(25)은 2010-2011시즌 세 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쳤다. 박주영은 22일(한국시간) 프랑스 랑스의 스타드 펠릭스 볼라르에서 열린 리그1 3라운드 RC랑스와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고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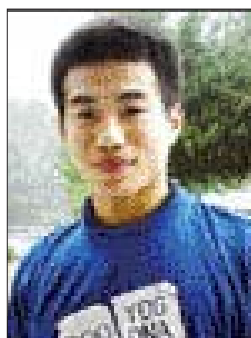
여수출신 김대범 근대4종 깜짝 금메달

이재형도 금 업어치기

'16강 명장' 허정무감독 인천 사령탑에

1회 청소년올림픽

볼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근대4종이 제1회 청소년올림픽에서 기적 같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대범(18·한국체대)은 22일 싱가포르 스포츠스쿨에서 열린 근대4종(수마 제외) 결선에서 펜싱, 수영, 육상, 사격 4종목 합계 4천588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는 러시아의 일리야 슈가로프(4천568점)가 올랐고 3위는 멕시코의 호르헤 카마초(4천548점)가 차지했다. 김대범은 이날 오전 첫 종목인 펜싱에서 12승11패로 공동 7위였으나 수영 자유형 200m에서 3위에 올라 합계순위를 5위로 끌어올렸다.



뒤 1,000m를 뛰는 구간을 세번 반복한다. 한국은 지난 6월 스웨덴 욕살라에서 열린 세계주니어 근대5종 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2연패를 이뤘지만 개인전 우승은 성인 대회를 통틀어 김대범이 처음이다. 김대범은 스웨덴 대회 당시 주니어 대표

팀에서 단체전 2연패의 주역이었으며 개인전에서도 2위를 차지한 최고의 유망주다. 박진만 대표팀 감독은 "대범이는 펜싱과 수영, 사격, 육상을 고루 다 잘하는 선수"라고 설명한 뒤 "오전에 펜싱 경기에서 심판 판정이 잘못돼 7위로 밀렸지만 대범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고 밝혔다. 여수 한려초, 문수중에서 수영을 하다 전 남해고 1학년때 근대5종으로 종목을 바꾼 김대범은 경기 뒤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은 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반드시 메달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유도가 제1회 청소년올림픽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 여자 44kg급의 배슬비(16·경남체고)가 정상에 오르는데 이어 이재형(17·보성고)은 22일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벌어진 유도 남자 81kg급 결승에서 러시아의 카산 칼무르자예프와 연장 접전 끝에 결정적인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내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남녀 각 1명씩 출전한 한국 유도는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효자 종목'의 명맥을 이어갔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응가음보모를 질판으로 꺾은 이재형은 준결승에서 그리스의 알렉시오스 나타나시디스를 한판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하지만 칼무르자예프와 금메달 결정전은 패말리는 접전 끝에 경기 종료 3초를 남기고 도망다니기에 급급하던 칼무르자예프가 지도를 받아 기적처럼 연장에 접어들었다. 배랑에서 탈출한 이재형은 연장 41초만에 회심의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내 대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했던 허정무(55) 감독이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의 새 사령탑에 올랐다. 인천은 22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2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구단주인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허정무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 구단주는 "사령탑을 맡기로 한 허정무 감독께 인천 시민과 팬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은 허 감독이 인천 구단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무 감독은 9월4일 부산 아이파크와 K리그 홈경기를 통해 팬들과 만나려 한다. /연합뉴스

최복음 마스터스 동메달

세계남자볼링선수권

최복음(광양시청)이 2010 세계남자볼링선수권대회 마스터스에서 동메달을 획득했

다. 최복음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인 22일(한국 시간) 개인종합 상위 16위 이내 선수들이 5전3선승제로 승부를 가르는 마스터스 준결승에 출전, 미국의 크리스 반스에 3-2로 패해 동메달을 땀다. 최복음은 앞서 15일 열린 개인전 결승전에서 평균 202로 244를 기록한 빌 오닐(미국)에 이

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개인종합에서는 장동철(울주군청)이 평균 212.13으로 동메달 땀었다. 지난 2008년 태국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로 종합 준우승에 올랐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는 은 1개, 동 2개 등 모두 3개의 메달을 거둬들였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경남과 1-1 무승부

2010 K-리그 18라운드

전남 드래곤즈가 1위 경남 FC와의 주말 대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은 21일 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10 K-리그 18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서 후반 종료로 앞두고 터진 김형필의 동점골로 1-1로 비겼다.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던 후반 23분 경남이 선제골을 기록했다. 경남의 윤빛가람이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리고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찰려준 공을 받은 이용래가 오른발 슛을 날려 전남의 골문을 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패색이 짙어가던 후반 43분 전남 김병종의 헤딩 패스를 받은 김형필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왼발슛을 날리며 팀의 패배를 막았다. 지동원과 경남 윤빛가람의 신인왕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경기는 윤빛가람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지동원은 후반 인디고 대신 그라운드에 투입됐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반면 윤빛가람은 강력한 신인왕 라이벌 지동원 앞에서 도움을 추가하며 최근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